

16년 4개월 살림꾼 사무장 퇴임 본당 연혁 속으로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8월 30일(금) 교육관 그리스도 왕 홀에서 16년 4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정년 퇴임하는 조광희(베드로) 전 사무장 퇴임식을 사목협의 위원과 구, 반장 교우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가졌다.

이날 퇴임식 1부는 전 사무장님 약력 소개 주임신부님의 퇴임 감사패 전달 가족소개 각 단체 꽃다발 증정 사목회장 송별사와 전 사무장님 답사에 이어 추가로 대중가요 김중환의 '사랑을 위하여'를 합창하고 2부 송별연 음식 나눔으로 이어졌다.

퇴임식 1부 약력 소개에서 2003년 5월 1일 본당주임 이상현(요셉) 신부님의 재임 중 충북 음성 감곡성당에서 우리 본당 사무장으로 입사하시어 오늘 퇴임하시게 되었다. 특히 교육자인 두 부모님의 강직함과 교직에서 퇴임하신 후 감곡성당 사목회장직을 10년간 연임하신 부친의 성 가정 훈을 이어받아 공사가 밝으시며 부인과 두 자녀를 두고 있다고 소개 후 주임신부님은 '전 신자들과 아울러 모가 없이 본당 행정에 임하여 교구로부터 재직 중 감사가 없었다.'라고 치하의 말씀을 하시고 감사기념패와 전별금을 전달하셨다. 답사로 전 사무장은 "저는 솔직히 이런 자리를 마련할 줄 몰랐다. 그냥 조용히 사목 위원들에게 인사만 드리고 떠나려고 하여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왔는데 이렇게 전 교우님들이 관대해 주시니 말문이 막혀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당을 떠나도 여석이 본당 교적을 가지고 있으니 시간이 허락되면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오후 9시 30분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합시다". 본당 사목목표 스마트 폰 알림을 삭제하지 않고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로 답사를 하였다.



2부에 출장 한식 부페와 주임신부님께서 애지중지 아끼던 헛개나무 5년산 담금주로 퇴임자의 건강과 만남을 위하여 건배를 함께 들고 그동안 못했던 대화 속에 어느 전 사목회장은 '조광희 베드로란 이름과 세례명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그 뜻은 본당에 사무장이란 완장을 숨기고 묵묵히 열악한 본당 사무 행정을 분열 없이 잘 집행하여 오신 것이다.'라고 칭송을 하였다.

올해 말복 막바지 더위 삼계탕 원기 보충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사목위원, 구역장, 본당 봉사자들, 32명은 올해 막바지 삼복더위에 지친 원기보충을 위해 8월 11일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에서 삼계탕으로 중식을 하였다. 이번에 제공한 삼계탕은 본당 주임신부님께서 더위 속에 본당을 위하여 여러 봉사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여 기력이 쇠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였다.



